

자기 발견과 극복의 신화 구조를 활용한 구술생애담 서사 분석 시론*

조홍윤**

차례

1. 서론
2. 부정/긍정의 극단적 인식이 반영된 구술생애담의 구조적 변별점
3. 긍정적 자기 인식에 결부된 '나의 역할' 찾기
4. 부정적 자기 인식에 결부된 '타인의 존재'
5. 행복한 삶의 서사를 위한 '자기 발견-극복'의 구조적 원리
6. 결론

<논문개요>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는가를 판단하는 일은 자기 내적 진실, '나'라는 판단 주체의 자기인식에 근거하며, 그러한 자기인식은 구술생애담 서사의 표층과 심층을 아울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재미있는 점은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자기인식이 종종 매우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어떠한 사례에는 긍정의 자기인식으로, 또 어떠한 사례에는 부정의 자기 인식으로 양극단에 치우친 구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양극단으로 치우친 구술생애담을 견인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양자에 해당하는 사례에 나타난 서사 구조상의 변별점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신화적 영웅서사의 '고난-극복' 구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극복의 주체로서 '나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방향의 구술생애담 서사가, '고난-극복'의 두 구조 축 중에서 '극복'의 축이 걸락되고 극복 주체로서의 '나'가 부재하는 경우에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방향의 구술생애담 서사

* 이 논문은 '2017년 한국구비문화회 하계학술대회(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 103호, 2017.8.16.)'를 통해 본 연구자가 발표하였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교(T.C. İstanbul Üniversitesi) 한국어문학과(Kore Dili ve Edebiyatı Bölümü) 강의교수(Öğretim Görevlisi)

가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긍정의 방향으로 일관되는 생애담 서사는 세부적으로 '고난-나의 역할-극복'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곧 한국 무속신화의 '자기 발견-극복'의 구조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발견과 극복의 신화 구조'는 생애 주체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재구할 수 있는 서사적 구조 원리로서, 다가올 삶의 경험을 긍정적인 의미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인식적 도식으로서, 필연적으로 반복될 현실적 삶의 고난을 맞이하여 그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사적 행동 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구술생애담, 자기 인식, 생애담 구조, 신화 구조, 자기 발견, 고난 극복

1. 서론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 그것이 행복하고 값진 것이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오로지 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긍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가진 바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가정의 화목함이나 인간관계의 원활함 등등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말함에 있어 객관적인 것으로 믿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지표들에 비추어 누구나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도, 또 누구나 동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도, 그 나름의 질곡이 있고 또 행복에 겨운 순간들이 있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는가를 판단하는 일은 객관적 사실 보다는 자기 내적 진실, '나'라는 판단 주체의 자기인식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¹⁾ '나'라는 주체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조직하고 구현해내는 구술생애담은 서사의 표층과 심층을 아울러 그러한 자기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 "연구자들은 구술 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성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구술자의 인식 체계 즉,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92쪽.

재미있는 점은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자기인식이 상당히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전체적인 구술 내용에서 본인의 인생에 대한 긍정의 정서가 엿보이는 사례에는 구체적인 에피소드의 구술에 있어서도 자기 긍정의 인식으로 일관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가 엿보이는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경험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일관되는 경향이 있다. 누구든지 일생동안 행복만을 경험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존재적 한계에 부딪혀 고통 받는 순간이 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양 극단의 자기 평가를 빚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단의 자기인식이 엿보이는 구술생애담 사례를 대상으로 둘 사이에 나타나는 서사적 변별점을 원리적 차원에서 구명해보고자 한다.

생애담의 서사적 구조와 원리에 대하여는 이미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 제주도 무녀의 생애담을 <바리데기> 신화의 서사에 비견한 김성례의 연구와 여성 생애담의 '고난-고난극복'의 반복 구조를 영웅서사의 구조에 비견할 수 있다고 본 천혜숙의 논의를 필두로,²⁾ 연구자들은 생애담 서사에 설화에 비견될만한 담화전략과 서사원리가 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³⁾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신화적 영웅서사 구조와의 유사성에 주목한 천혜숙의 논의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생애담 사례에서는 구연자가 몸소 겪어낸 고난들이 전체 서사의 핵심 국면들을 이룬다. 또한 결과적으로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경유한 '현재'에 생애담 구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애담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구조가 '고난-고난극복'의 신화적

2) 김성례, 「한국 무속에 나타난 여성체험 : 구술 생애에서의 서사분석」, 『한국여성학』 제7집, 1991, 7-42쪽; 천혜숙, 「농촌여성생애담의 문학담론적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283-324쪽.

3) 대표적으로; 김정경, 앞의 논문; 김정경,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 : 여성구술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177-207쪽;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삶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9집, 고전연구학회, 2009, 279-300쪽 등이 있다.

영웅서사 구조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⁴⁾

물론 개개의 사례마다 구연자가 겪어낸 고난의 내용과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현재에 이르는 실제의 과정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술생애담이 결국 “한 인간이 일생동안 경험했던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기억으로 소환하여 나름의 규칙을 토대로 구성한 서사체”⁵⁾임을 고려하면, 기억을 소환하여 그것을 재구성하는 구연자의 현재적 자기 인식과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 서사의 구조화 방식이야말로 구술생애담의 서사적 차이를 빚어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양극단의 자기 인식이 두드러지는 구술생애담의 경우 자신이 겪은 ‘고난-고난극복’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구연자의 인식이 궁극적으로 그 인생 전체에 대한 자기 인식을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으로 견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도 여러 구술생애담 자료 중에서도 그 생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평가와 부정적인 자기 평가가 두드러지는 양 극단의 사례를 대상으로, 각각의 경우에 자신의 경험을 ‘고난-고난극복’의 신화적 반복구조로 재현해 내는 방식에 나타난 변별점을 드러내고 그에 반영된 인식의 차이를 구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 스스로가 긍정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한 서사적 길은 무엇인지, 어떠한 인식이 ‘나’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의미화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의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4) ‘시련의 반복’을 통한 삶의 의미화를 여성 생애담의 서사 전략으로 본 김정경의 논의 또한, 생애담의 기본 구조를 ‘고난-고난극복’이라는 신화적 영웅서사의 유사구조로 본 천혜숙의 논의의 자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김정경, 앞의 논문).

5) 한정훈, 「구술생애담, 기억의 재현과 주체의 복원」, 『감성연구』 제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173쪽.

2. 부정/긍정의 극단적 인식이 반영된 구술생애담의 구조적 변별점

부정과 긍정의 양극단에 치우친 구술생애담이 어떠한 구조적 변별점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구술생애담의 기본 구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생애담 특유의 서사전략을 논한 김예선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구연자가 자신의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로 재구함에 있어서 ‘살아온 이야기’가 ‘핵심사연’을 이루는 가운데 ‘보조사연’과 ‘삽입사연’이 결들여지는 방식이 동원된다고 보았다. 이때 핵심사연은 서사의 전체를 관류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하며, 보조사연은 핵심사연을 뒷받침함으로써 이야기에 섬세함과 풍성함을 더하는 요소로, 삽입사연은 서사맥락을 벗어난 것이지만 살아온 이야기를 다채롭게 만들고 구연상황에 생명력을 더하는 요소로 기능한다.⁶⁾ 그 중 생애담의 서사적 맥락을 이루는 구조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핵심사연과 보조사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채트먼(Seymour Chatman)이 이야기(story)를 구성하는 구조적 요소로서 제시한 핵사건(kernels)과 주변 사건(satellites)의 관계에 대응하는 것이다.⁷⁾ 이에 핵심사연과 보조사연의 연계로써 구술생애담 서사의 일반적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법하다.

이에 더하여 생애담 구술이 지향하는 서사적 목표에 대한 한정훈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구술생애담이 기본적으로 한 인간의 인정욕망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며 “구술생애담은 정체성을 보존하며 세계 속에 어떻게 안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기대가 내재되어 있으며, 타자에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기늠하는 서사”라 논한다.⁸⁾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술생애담은 핵심사연과 보조사연의

6) 김예선, 앞의 논문, 290-296쪽.

7) S.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옮김, 푸른사상, 2003, 63-65쪽.

8) 한정훈, 「인정의 서사와 주체의 재정립 : 무명의 한 여성 판소리 창자의 구술생애담을 대

연계를 통해 구조화되며 ‘인정’을 목표로 하는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핵심사연(보조사연 - 보조사연 - …) - 핵심사연(보조사연 - 보조사연 - …) - … → 인정

이때 각각의 핵심사연은 구연자의 구술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고난의 상황이 될 것이며, 핵심사연에 포괄되는 보조사연들은 그러한 고난의 상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건과 그에 대한 극복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술생애담의 서사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구술생애담의 기본 서사 구조

핵심사연1		핵심사연2		…		핵심사연n		목표
고난1	극복1	고난2	극복2	…	…	고난n	극복n	인정

이러한 기본 구조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단의 자기 인식이 두드러지는 구술생애담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상 자료는 『시집살이이야기집성』 1-10권에 수록된 자료 중에서 선별되었다. 해당 자료집은 2008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연구과제(토대분야)로 수행된 ‘시집살이 이야기 조사연구 - 현지조사를 통한 시집살이담 구술 자료의 집대성’ 작업의 결과물이며, 그 중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채록한 자료 중 두 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여러 구술생애담 자료 중에서도 ‘시집살이담’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성이라는 동일한 성별, ‘시집살이 이야기’라는 공통의 화두로서 비교의 충위를 맞추기 위함이며, 여성의 고난을 말함에 있어 시집살이가 지닌 특별한 위상을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⁹⁾ 같은 성별, 비슷한 연령으로서 똑같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낸 두 화

상으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제19호권 2호 제67집,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15, 350쪽.

자의 생애담 사례는 비록 세부적인 경험 내용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해도, 생애담 서사의 구조화 원리를 비교 도출하는 데에는 무리 없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긍정적 인식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김OO 화자의 사례를 살펴본다. 김OO 화자는 1931년생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이 고향이다. 부잣집 오남매 중 넷째로 귀하게 자랐고 스물한 살에 시이모의 중매를 통해 삼남매의 맏이와 결혼하였는데, 당시 시대는 매우 가난한 형편이었다. 남편은 스물두 살로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는데, 화자는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남편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진학시켰다. 후에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잠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산림청 측량기사로 일했다. 화자는 남편의 대학 공부는 물론이고 시누이와 시동생, 네 자녀의 대학 공부를 뒷바라지 했으며, 그들의 진학-취업-결혼의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김OO 화자의 노력으로 인해 온 집안 식구가 다 잘 살게 되었으며, 그러한 공을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구술 당시에는 중풍에 걸린 남편과 생활하고 있었는데, 잘 키워낸 자녀들의 효도로 마음 편히 지내고 있노라 이야기하였다.¹⁰⁾

반대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지는 사례는 김△△ 화자의 사례이다. 김△△ 화자는 1936년생으로 경상북도 울진군이 고향이다. 스물한 살이 되던 해에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같은 나이의 남편과 결혼했다. 당시 남편은 친구가 보여준 화자의 사진을 보고 한 눈에 그녀에게 반했다. 화자는 덩치가 작은 남편이 싫었지만 자신이 ‘남자를 차버리면 서울에 가서 공부를 못 마칠 것 같아서’ 마음을 받아주었다. 시대의 살림은 부유한 편이었으나 살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시어머니로 인해 불필요한 고생을 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편은 체신대학을 졸업하고 체신부 공무원으로

9) 신동훈, 「시집살이담의 담화적 특성과 의의 - '가슴 저린 기억'에서 만나는 문학과 역사」,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 박이정, 2012, 10쪽.

10) 신동훈 외,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9, 박이정, 2013, 53-74쪽.

일했으며, 남편의 입지에 따라 부산 → 밀양 → 서울로 이주하면서 시대과는 따로 살림을 내었다. 그러나 남편이 외도하여 다른 살림을 차리고 결국은 내연녀의 손에 요절하면서 홀로 슬하의 삼형제를 키우느라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 그럼에도 아들들은 자신의 고생을 몰라준다며, 이제 자식도 손자도 싫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 것이라는 등 불만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¹¹⁾

두 생애담 사례의 서사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본 구조로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김OO

남편의 대학 뒷바라지		첫 딸의 죽음		시동생들 교육과 독립		4남매 교육과 독립		목표
·등록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친정	농사지은 것을 먹을 수도 없이 다 팔아서 남편 공부에 보탬	결혼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일은 시동생의 병	시동생 대신 딸이 죽기를 소원함	중학교만 나온 시동생들	·남편의 취업 후 셋방살이를 해가며 시동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교사가 되게 함 ·직접 일군 재산을 나누어 주어 시동생들을 결혼시키고 분가시킴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4남매의 대학 진학을 반대한 남편	·신용으로 빚을 입어 4남매를 교육 ·시대에 맞춰 자녀들의 전공을 직접 정해주어 취업이 잘 되었음 ·배우자들을 직접 골라 결혼시키고 재산을 나누어 주며 분가시킴	집안을 일으킨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인정

○ 김△△

시대에서 살던 시절의 힘겨운 생활		바람난 남편		남편의 요절		뜻대로 살아주지 않는 아들들		목표
넉넉한 살림을 제대로	살림을 규모 있게 운영하시	다른 지방에 발령이	남편의 입지로 따라가	내연녀의 손에 의해 죽은 남편	남편 없이 세 아들을 키우기	혼자 사는 첫째 아들, 딸만 셋	아들도 싫고 손자도	피해자로서의 삶에

11) 신동훈 외,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3, 박이정, 2013, 189-212쪽.

운영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로 인해 필요 없는 고생을 함	도록 하소연 해 봤으나 소용없음	나서 가며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자신과 아이를 돌보지 않은 남편	따로 살며 남편이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나 돌아오지 않음	위해 사과장사와 전행 장사를 하며 고생했으나 아들들은 자신의 고생을 일러주지 않음	남고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셋째 아들	싫어 만나고 싶지도 않음	대한 인정
-------------------------------	-------------------	------------------------------------	-------------------------------------	---	---------------------------	---------------	-------

각각의 서사 구조만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난-극복’의 기본 구조를 형성해야 할 보조사연의 구술에 있어서, 김OO 화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고난-극복’의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반면, 김△△ 화자의 경우에는 ‘극복’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부재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극복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OO 화자의 경우에는 일관적인 긍정의 정서가, 결과적으로 극복되지 못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 화자의 경우에는 일관적인 부정의 정서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자에 드러난 기본적 서사 구조의 차이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음절을 통하여 구체적인 구술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생애담 사해에 나타난 서사의 구조화 방식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3. 긍정적 자기 인식에 결부된 ‘나의 역할’ 찾기

김OO 화자의 경우 부유한 집안의 귀한 딸로 자라던 행복한 ‘최초의 상황’¹²⁾에서부터 가난한 집 만며느리로 들어가는 결핍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녀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가난’이 되었고, 이후 그녀의

12) 블라디미르 프롭프, 『민담형태론』, 유영대 옮김, 새문사, 1987, 30-31쪽.

삶은 교육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된다. 그리고 그녀가 구술한 생애담 또한 남편과 시동생들, 4남매를 교육시키기 위한 고군분투의 과정이 대체적인 핵심사연의 맥락을 이룬다. 결혼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편은 가난을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하였으나 화자의 설득에 의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진학하였고, 졸업 후 측량기사로 일하게 됨으로써 집안을 일으킬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조사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대학 갈 때 할머니가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본인이 간다 그랬어요?

김OO: 그렇지! 내가 가라 그랬지 우리 아저씨가 어떻게 가? 돈이 있어?¹³⁾

실상 화자는 남편을 대학에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처가의 조언을 듣고 남편을 진학시키기 위한 처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대학 합격통지를 받고 찾아간 친정의 반응은 “버릇 되니까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화자의 입장에서는 딱딱한 일이었겠으나 포기하지 않고 농사지은 것을 입에도 대보지 못하고 장에 내다 팔아 남편의 대학 뒷바라지를 감당해냈다.

친정에 인제 입학해놓고 갔거덩, 내가? 그리고 아버지보고 잘사시니까, 마차로 실어다 쌀을 팔고 기냥 수박, 참외도 마차로 실어다 오라버니가 팔고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인제 돈 줄줄 알고 갔거덩? “돈 달라.”고 입학해놓고 갔거덩? 그랬더니 버릇 된다고 안 주셔. 그니까 나하고 보리밥만 먹고 살았지. 오이고 참외고 뭐든지, 저기 오이하고 그러니깐 가지고 그런 거고 다 갖다 파느라고¹⁴⁾

13) 신동훈 외,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9, 박이정, 2013, 68쪽.

14) 위의 책, 70쪽.

교육으로 집안을 일으키고자 했던 김OO 화자의 손길은 시누이와 시동생에게도 미쳤다. 가난으로 인해 중학교를 마치고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시누이와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한 남편이 측량기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화자는 셋방살이하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시누이와 시동생을 대학까지 마치도록 도왔다. 후에 시동생들이 결혼하여 독립할 때에는 직접 일군 재산을 나누어주기도 했다.

그때 시누는 내 시집오니까 여덟 살인데 중학교만 갔지 고등학교는 못 갔어. 그래서 고등학교는 우리 아저씨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셋방 살면서 그러니깐 복 한 칸, 복도 문 방 한 칸, 복도 문 방 두 칸 가지고 살다가 이제 초가 집으로 이제 사가지고 살다가, 그니까 시누 시동생은 우리가 셋방 살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냈어....(중략)...그니까 시누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나를 엄마같이 생각한다고 잘혀지. (웃음) [조사자: 아, 잘해야죠.] 그니까 시동생 교장 퇴직하고, 시누도 선생 퇴직하고¹⁵⁾

그래서 그러고설랑 내가 그렇게 논밭 사났는데 이제, 그렇게 또 시간(세간) 나는데, 다 그래도 또 그냥 집 전세라도 얻어주지, 기냥 돈 없다고 월세라도 얻어줄 수가 없지...(중략)...시간 난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 보구 논 달래. 그래서 시어머니가, “애, 예미야, 논 달랜다.”기르셔, 나 욕심 안 부리고, “주세요”이랬어.¹⁶⁾

네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에는 남편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 그러나 화자는 단호하게 맞서서 자신이 책임지고 자녀들의 교육을 뒷바라지 했다. 지인들에게 돈을 꾸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도 제 때에 돈을 갚아 신용을 지킴으로써 어려운 형편에도 4남매를 교육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시대에 맞추어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모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활하였고, 자녀들이 결혼할

15) 앞의 책, 56-57쪽.

16) 앞의 책, 62-63쪽.

때에도 좋은 배우자를 직접 골라줌으로써 자녀들 모두 잘살게 되었노라 자신 있게 이야기 하였다.

“대학교를 어떻게 다 가르키나?”고, 막 야단하는 거야. 우리 아저씨는 손에 돈이 있어야만 가르키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당신은 아무 참간(참견) 말고, 월급만 가져오쇼.” 그래가지고 월급만 가지고 하다가 친구들한테 돈을, 다 돈을 끌어내서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보낸 거라고¹⁷⁾ 신용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돈을 그냥 디리 줬지. 그래니깐 십 원 하나 안 떼먹고 그렇게 잘하니깐, 잘해줘서 공부를 다 시켰지¹⁸⁾

애들도 대학교 갈 적에 세월에 따라 과를 택해서 보내요. 그러면은 취직이 잘 돼. 큰 아들은 전기과 보내고...(중략)...그렇게 인제 과를 택해서 보냈어. 그랬더니 졸업하고 다 취직이 척척 다 잘됐지.¹⁹⁾

사람이 인상에서 맘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인상을 보고 다 얻어 준거야. 그래서 미느리 셋, 딸 다 착하고 잘해.²⁰⁾

그처럼 가정 구성원들의 교육과 결혼 및 독립에 이르기까지 김OO 화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노라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견인한 화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모두 자신에게 잘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노라고 화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긍심을 숨기지 않는다. 이처럼 ‘가난’이라는 고난의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김OO 화자의 이야기는 각각의 핵심사연에 결부된 보조사연마다 ‘고난-극복’의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안을 일으킨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인정’이라는 총체적 서사목표를 향해 집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눈에 띄는 것은 언제나 두드러지는 ‘나의 역할’이다. 모든 사연에서

17) 앞의 책, 58쪽.
18) 앞의 책, 61쪽.
19) 앞의 책, 60쪽.
20) 앞의 책, 62쪽.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극복해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언제나 화자 본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점이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첫 딸의 죽음’에 관한 사연이다. 해당 사연은 김OO 화자의 핵심사연 중 가장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대목이면서도 그 회고의 내용에 있어서는 적잖은 의아함을 느끼게도 한다.

김OO 화자가 결혼한 후에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화자가 첫딸을 임신 중이었을 때, 시동생이 크게 앓는 일이 있었다. 이에 화자는 새 식구들이고 얼마 안 되어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자는 부풀어 오른 배를 어루만지면서 ‘니가 죽고 삼촌이 살게 해다오’라고 태중의 아이에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첫딸은 낳은 다음날 죽고 시동생은 병이 낫게 되었다. 이일에 대해 화자는 ‘잘 된 일’이라 말한다.

첫 딸은 시집와서 삼 년 안에 인제 있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삼 년 안에 시동생이 아파서 죽게 됐다고 또 소화가 안 되가지고 위가 아파가지고 “에휴, 너 들어온 지 삼 년 만에 시동생이 죽게 됐구나.” 기르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중략)...‘에휴, 그냥 니가 죽고 삼촌이 살게 해다오’ 이렇게 내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랬어. 그랬드만 난지 그 이튿날 죽었어. 그리고 시동생은 나서 괜찮고. 그래야지 그 이 뱃속에 있는 게 살고, 시동생이 그렇게 크고 자란 사람이 죽어봐. 시어머니가 얼마나 돌아갈 때까정 그 소리 하시지. 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 된 거지.²¹⁾

시태의 눈총이 두려워 아이가 대신 죽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모습이 비정하게 느껴질 법한 내용이다. 그러나 김OO 화자의 일관된 생애담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왜곡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아이의 죽음은 분명 화자에게 있어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후의 구술 상황에서 화자는 첫아이를 잃어버린 것에

21) 앞의 책, 61쪽.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²²⁾ 낳은 다음날 찾아온 아이의 죽음, 그것은 화자가 손쓸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횡포에 다름 아니며 해당 사건에 있어서 화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철저한 약자일 뿐이었다. 것처럼 아이의 죽음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무력하기만한 어머니의 절망감은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 이에 철저히 무력한 존재로서의 기억을 유력한 주체로서의 기억으로 왜곡시켜야 할 인식적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²³⁾

분명 새 식구 들여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눈총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한 두려움에 한 번 쬐은 태중의 아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일시적으로 그와 같이 비정한 생각을 품었던 경험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극복되지 못한 고난의 기억을 극복된 고난의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매개 항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첫 딸의 죽음’이라는 문제 상황을 ‘시동생의 병’이라는 문제 상황으로 대치함으로써, 무력한 자신에 대한 절망의 기억을 유력한 주체로서의 기억으로 전환시킨 것이리라 본다. 그렇게 하여 김OO 화자에게 있어 ‘첫 딸의 죽음’은 ‘잘 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녀는 그 생애를 구술함에 있어 모든 고난의 상황마다 ‘나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고집스럽게 그려내려 한다. 그러므로 김OO 화자에 의해 재구성된 구술생애담은 ‘고난-극복’의 신화적 영웅서사 구조를 뚜렷하게 드러내게 되며, 이때 형성된 ‘고난-극복’의 서사에는 언제나 고난 극복의 주체인 ‘나’가 강조됨으로써 ‘고난-나의 역할-극복’이라는 세부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22) “첫 딸 하나 있고, 아들 둘 러고 딸 아들이면 오남매면 딸이 얼마나 좋아. 저 하나가 돼서 망하잖아. 딸 둘이면 지희끼리 얼마나 재웠어.”, 앞의 책, 68쪽.

23)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이와 같은 인식 작용에 대하여 김정경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계속되는 시련, 끊임없는 희생이 아니라 희생 그 자체의 희생 즉, 이러한 상황으로부터의 배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이 세계를 지탱하며 그것은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김정경, 앞의 논문, 104-106쪽 참조).

4. 부정적 자기 인식에 결부된 ‘타인의 존재’

김OO 화자의 경우와 달리 김△△ 화자의 구술 내용을 보면 ‘고난-극복’의 서사 구조에 한 축을 이루어야 할 ‘극복’에 대한 내용이 결락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거기 설정된 ‘최초의 상황’은 여타의 시집살이담 사례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집을 가야했노라’ 이야기 되는 것이 시집살이담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그에 반해 김△△ 화자의 결혼 장면은 매우 낭만적으로 그려진다. 자신을 열렬히 사랑했던 남편은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모습을 담아내느라 정신이 없다. 눈 내린 마당은 하얗게 채색되어 있고,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자신을 향해 사람들은 ‘마당 가운데 꽃이 피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한 장면을 구술하며, 김△△ 화자는 55분간의 생애담 구술 중 유일하게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전부 눈이 저녁에 와가지고는, 뭐뭐 지붕마다 눈이 하얗지. 그래마 그거도 보고 그랬어. 나 지금 늙어서 똑 뿔 같지? 그때는 나이 스물한 살 먹었을 때는, ‘야-이 엄동설한에 핀(꽃)이 저런, 함박꽃이 한 송이가 피었나?’ 다 그 소리 했어...(중략)...신랑 되는 사람이라고는 서울 와서 고등학교 땡기니까 카메라를 구해가지고, 마당에 가서 이 머리에 가 사진 찍고, 저 머리에 가 사진 찍고 그 난리를 쳤지. (웃음)²⁴⁾

그토록 행복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라도 남아 있으면 좋으련만, 채 인화하지 못한 필름을 잃어버린 것이 화자의 불행을 예고하는 복선이 되었는지, 이후로 이어진 그녀의 삶은 오로지 고난과 고난의 반복이었다. 김△△ 화자가 시대에서 생활한 기간은 비교적 짧다. 남편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다시 체신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기까지 7년의 시간 동안 비교적 부유한 시대에서

24) 신동훈 외,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3, 박이점, 2013, 198-199쪽.

시집살이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시대에서의 짧은 시간도 ‘살림 운영을 못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다시 생각하기 싫은 고통의 시간일 뿐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시어머니가 미워, 지금도 그때 그 어렵게 힘들게 살은 생각을 하든, 지금도 시어머니라든 치가 떨려. 왜 여자가 여, 대부분 지금이나 예전에 옛날이나, 여자가 안에서 내조를 잘해야만 그 살림이 좀 융통적이지. 윤기가 나고 조금, 이래 괜찮게 살 수 있는데, 여자가 집구석에서 그런 식으로 살림 살고 그거는, 완전히 누 마따나 그거 뭐 세 살 먹은 애도 그런 식으로는 살림을, 그러니깐 난 지금도 시어머니가 미워.²⁵⁾

그리고 남편의 임지로 따라나서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를 벗어난 후에는,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의 외도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²⁶⁾ 서울 신설동의 시외전화국에서 일하던 남편은 전화국 건물 청소를 하던 내연녀를 만나 외도를 시작했고, 목포 전화국 단말국장으로 부임하면서는 내연녀와 다른 살림을 차려 살면서 화자와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생활비마저 주지 않았다. 이에 화자는 남편의 임지로 따라 내려가 셋방을 얻어 살면서 남편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빈췌 포기하는 심정으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오게 된 것은 떨어져 살아야 생활비라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셋방 주인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포기하더라도 생활비라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의

25) 앞의 책, 196쪽.

26) ‘남편의 외도’에 대한 경험이야 말로 김△△ 화자가 김OO 화자와 같은 긍정적인 서사를 구성해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두 화자의 서사를 같은 층위에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아함을 느끼는 이도 있으리라 본다. 이에 대하여 확인하자면, 김OO 화자의 구연이 마무리되고 캡코더와 녹음기가 꺼져있는 상황에서 화자는 측량기사 일을 하며 돌아다니던 남편이 수차례 외도를 범했음을 살며시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한 경험이 김OO 화자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 리 없으나, 화자는 그에 대한 사연을 생애담의 한 대목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김OO 화자에게는 그러한 사연이 자신의 생애담을 성공적으로 재구하는 일에 필수적인 에피소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 것이었다.

하루 밤새도록 구워 삶아 뇌두른 팔십 프로 사람이 이제 돌아서는데, 그 비리비리헌 데 가서 자고 오면 백 프로 따, 판판이야.²⁷⁾

“사모님, 서울 올라가서 살다가 월급날에만 딱 오세요” 그래야만 애들 덜고 생활할 돈을 주지, 내가 이 이래 봤을 때는, 지우에 사모님 애들, 막내인 아들 하나 데리고 갔었거든. “여기 하루 종일도 안 와보는데, 안 와보는데 그래 생활비를 안주면 어떻게 생활 하실라?”냐고, “서울에 올라가서 살면서 월급 때가 돼서 내려오면, 애들 데리고 생활할 돈은 줄 거 같고, 여기에 있으론 안줄 거 같다.” 이래니까, 아저씨 하는 말이. 그래문서 나를 달래더라고.²⁸⁾

하지만 남편은 술에 수면제를 타 먹인 내연녀의 손에 요절하게 되고,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화자는 혼자 힘으로 세 아들과 살아가기 위해 사과장사와 전빵장사를 해가며 모진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얘기하려면 역사가 깊지. 여자를 얻어가지고 살았어. [조사자 :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응. 여자가 술에다 수면제 타 맥여 버렸어.²⁹⁾

솔직히 나 그때 나이 서른세 살인데, 나 지금 칠십 넷이거든? 서른세 살인데도 한나도 안 아까워, 한나도 안 아깝고, 죽어서 자빠졌는 낫쪽에다 춤(침)이라도 받고 싶어.³⁰⁾

사과장사를 하다가, 글케 히다 보니까네 저, 전빵 전만두를 했, 저기 저, 해가지고, 그걸 내 가게에서 해가지고, 노는 손님한테 팔면서 인제 뭐, 그 물건을 또 한 개에, 한 개에 백 원씩인데, 우리는 한 대에 칠십 원씩 주더라고

27) 앞의 책, 206쪽.

28) 앞의 책, 206-207쪽.

29) 앞의 책, 203쪽.

30) 앞의 책, 207쪽.

[조사자: 아.] 칠십 원씩 준 걸 가져가서 백 원씩 받아가지고 칠십 원은 들이 주고 삼십 원은 우리가 먹고, 이제 그런 것도 좀 거 대 했어.³¹⁾

그토록 힘들게 키워 놓은 아들은 고생이 무색하게도 화자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 딸만 셋 낳은 막내아들은 아들 손주를 원하는 어머니의 바람을 외면하고,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첫째 아들은 이후로 쪽 혼자 살고 있다. 이에 화자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한 술한 노력들이 다 부질없게만 느껴지고, “이제 아들이고 손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한다.

[조사자: 그럼 뭐 막내아들만 딸이, 딸만 있고, 나머지 아드님들은 아들이랑 있어 잘 살아요?] 아들, 우리 둘째 아들은 아들이랑 딸 하나 남매고, 큰 아들은 그게 결혼해가 한 일 년 살다가 딱 꺼져빠려 안 살고...(중략)...안 생각해. 절대로 안 생각하고 오로지 내 자신만 생각하다 갈라 그래. 생각해 봐야 내 생각대로 되도 안 하는 거, 그런 거를 뭐.³²⁾

김△△ 화자의 구술 내용을 살펴보면, 그에게 있어 고난은 언제나 타인의 존재로 인해 도래하고 그녀 스스로는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행복이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불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해지는 타인의 폭력과 마찬가지로였다. 화자의 구술 내용 중 유일하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결혼 당시의 사연에서도,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하였으며, 시댁에서 살 때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분가해서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불행하였다. 그러다 ‘남편의 요절 때문에’ 그녀는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감당해야 했으며, 구술의 시점에서는 ‘아들들 때문에’ 젊은 날의 고생도 의미 없이 여겨진다. 결국 화자는 구술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언짢은 기분이 누적되다가 결국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인터

31) 앞의 책, 201쪽.

32) 앞의 책, 210쪽.

뉘를 마쳤다. 어쩌면 그녀는 타인에 의해 훼손된 자신의 삶을 낫선 타인인 조사자들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타인에 의해 고통 받는 경험을 누적시킨 것인지도 모른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바람난 남편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홀로 세 아들을 건사하기 위한 눈물겨운 삶이 구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요절함으로써’, ‘힘들여 키운 자식들이 자신의 바람을 외면함으로써’, 결국 그녀의 고난들은 극복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남편의 의도에 대한 대응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녀는 타인의 조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의 직장 부하직원이 건넨 조언에 따라 무작정 남편 곁으로 가서 회심을 종용하기도 하고, 셋방 주인의 조언에 따라서 남편과 거리를 두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해당 내용의 구술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 과정에 대한 내용은 구술되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기 때문에 그 말을 따랐을 뿐이며, 따라서 그녀의 실패 또한 그들이 잘못된 조언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의미화 된다.

그처럼 김△△ 화자의 구술생애담에서는 고난의 원인도, 그 극복도 오직 타인의 존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하기에 그녀가 구술하는 생애담에서 고난 극복의 주체인 ‘나’는 부재하며, 각 핵심사연에 대한 ‘고난-극복’의 서사 구조는 미완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5. 행복한 삶의 서사를 위한 ‘자기 발견-극복’의 구조적 원리

두 화자의 구술생애담을 살펴본 결과 김OO 화자의 경우에는 그 서사에 ‘고난-극복’의 신화적 영웅서사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언제나 고난에

대응하는 ‘나의 역할’을 중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극복의 주체로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고난-나의 역할-극복’의 세부구조가 고집스럽게 일관됨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김△△ 화자의 경우는 고난의 원인과 대응책, 자신의 삶에 대한 인정의 주체를 모두 ‘타인의 존재’에서 찾음으로써, 그 서사에 극복의 주체인 ‘나’는 부재하고 그녀가 경험한 고난들은 이미 모두가 지나간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식 상에는 극복되지 못한 현재의 문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고난-극복’의 구조를 이루어야 할 서사의 한 축, ‘극복’의 축이 마련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일생의 경험을 이야기로 재구성함에 있어 보여주는 뚜렷한 서사구조상의 차이가 두 화자가 자신의 일생을 부정과 긍정의 양극단으로 인식하는 양상과 밀접한 영향관계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OO 화자의 생애담 서사에 일관되는 ‘고난-나의 역할-극복’의 구조가 한국 무속신화의 구조적 원리에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신화는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화두로 삼는 서사체이다.³³⁾ 인류가 그 오랜 시간동안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겪어내야 했던 슬한 한계의 경험,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의 경험과 그 과정에 수행되었던 인식적 운동의 경험들이 일정한 서사적 원형(元型, archetype)을 형성하여 신화를 빚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에는 인간적 한계에 부딪쳐 절망하면서도 끝내는 자신이 직면한 한계를 초월하여 신성(神聖, sacred)을 발현하는 인간 존재의 모습이 형상화되며, 그러한 형상에 접속한 신화 향유자들이 그 자신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여 자기 자신으로서의 완성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원형적 인식의 메커니즘이 구현되어 있다.

그러한 신화적 기능이 두드러지는 것은 한국의 무속신화이다. 대개의 한국 무속신화는 평범한 보통의 우리와 다르지 않은 주인공들이 인간적 한계

33)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전해진 상징이나 신화의 의례는, 인류의 역사적 상황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한계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Mircea Eliade, 『이미지와 상징』, 이계실 옮김, 까치, 1998, 40쪽.

에 절망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존재적 완성을 이루어 가는 이야기이다. 대표적인 무속신화인 <바리테기>, <당금에기>, <세경본풀이>, <이공본풀이> 등 대다수의 한국 무속신화에 그러한 서사가 펼쳐진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공동의 의례를 통해 구송됨으로써 그 향유집단은 주인공의 서사적 행보에 따라 인간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서사적 길과 인식적 가능성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무속신화의 서사적 특성에 주목하여, 본 연구자는 한국 무속신화의 신화적 기능을 담보하는 서사 구조를 구명하고, 그것을 개인적 인식문제의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³⁴⁾

당시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신화 원리로 구명되었던 것은 ‘자기 발견-극복’의 구조적 원리이다.³⁵⁾ 대개 결핍된 상황에 놓여있던 신화 속 주인공들은 현실적 결핍으로 인한 고난에 의해 자기 존재성³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닌 채, 자의적/타의적으로 현실적 고난의 원인인 부정적 자기 존재성에 대비되는 이상적 존재성을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통해 주인공은 현실적 고난의 해결에 필요한 실마리들을 발견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발견되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이 주인공의 외부에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인공에게 주어져 있었던 본래적 자기 존재성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 무속신화의 서사가 그려내는 과정, 주인공이 자신의

34) 한국 무속신화의 신화적 기능이 개인의 인식문제 해결에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는 참고 『콤플렉스 치유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무속신화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를 참조하기를 바라며, 본고의 논의에서는 지면의 한계 상 그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35) 이러한 구조에 대한 제언이 일반적인 영웅신화와 무속신화의 ‘실제 구조’가 다르다는 생각에 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영웅신화의 의 출생, 고난, 위기, 극복 등 표층적 구조 항목으로 포착되지 못한 신화의 핵심적인 구조적 자질이 무속신화의 경우에 보다 뚜렷하게 드러남을 주목한 것이다.

36) 존재성의 개념에는 존재를 구성하는 콘텍스트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 즉 ‘자기 존재성’에는 자기 자신의 본래적 자질은 물론, 직면한 상황, 관계의 대상 등이 포함될 것이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아 나서고 그 극복과 함께 신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 고난에 직면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존재적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그 심층적 서사 구조는 ‘자기 발견-극복’의 구조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³⁷⁾

이러한 ‘자기 발견-극복’의 구조적 원리는 김OO 화자의 생애 구술에 일관된 서사 구조로서 구현되어 있다. 고난에 직면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나의 역할’, 즉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 극복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김OO 화자의 ‘고난-나의 역할-극복’의 서사 구조는 한국 무속신화의 심층 구조적 원리에 온전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의 서사야말로 가장 보편적이고 성공적인 삶에 대한 서사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의 구조적 원리에 대응하는 김OO 화자의 생애담 구술이 일관된 자기 긍정의 방향성을 띠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화의 주인공이 자기발견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 자기 삶의 완전한 주체로서 존재적 완성을 이루어가듯, 김OO 화자의 생애담 구술은 자기 고난에 대한 극복의 주체로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삶의 주체로서 온전히 선 자기를 인식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그로 인한 자기 긍정의 인식이 그 서사의 전반에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에 그러한 자기발견과 극복의 구조가 결락되어 재구성된 김△△ 화자의 생애담 구술은, 스스로를 타인의 폭거에 의한 피해 대상으로서 자리매김하게 할 뿐, 자기 삶의 주체로서 성립되지 못한 자기 존재성의 인식이 일관적인 부정의 방향성을 띠게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자기발견-극복’의 신화 구조를 통한 생애담 분석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자기 경험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순간순간의 경험과 자기 행위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도식적 과정이 된다는

37) 참고, 앞의 논문, 187-192쪽 참조

전제에서,³⁸⁾ 생애담 구술에 나타나는 일관적 서사 구조가 ‘자기발견-극복’의 구조에 부합할수록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것으로 반추하고, 다가올 미래의 나날에 희망적인 삶을 그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기발견-극복’의 구조는 구술생애담의 화자가 자신의 삶을 의미화 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인식상의 도식이 지닌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서사적 길을 제공할 것이다.³⁹⁾

이는 ‘자기발견-극복’의 구조에 부합하는 구술생애담이 더 높은 수준의 것이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것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를 주장하고자 함이 아니다. 김OO 화자의 경우처럼 자기 긍정으로 일관되는 생애담이 오히려 지나친 자기 자랑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김△△ 화자의 경우처럼 현재 지속형의 고난과 상처로 일관되는 이야기가 더 절절하고 꼭진한 것으로 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문학작품으로서의 미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높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른다. 또한 현실적 삶의 차원에서도 확고한 자기 긍정으로만 일관되는 삶은 오히려 지나친 독선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자기발견-극복’의 구조가 타인의 삶 그 자체를 재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38) Donald E. Polkinghorne,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강현석 외 옮김, 학지사, 2009, 39쪽 참조

39)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캠벨(Joseph Campbell)-보글러(Christopher Vogler)의 원질신화(monomyth) 구조를 적용하여, 자신의 삶을 인식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의 심리 치료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Philip Dybicz, “The Hero(ine) on a Journey: A Postmodern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Vol.48(2), 2012, pp.267-284; Derek L. Robertson & Christopher Lawrence, “Heros and Mentors: A Consideration of Relational-Cultural Theory and The Hero’s Journey”,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Vol.10(3), 2015, pp.264-277). 이러한 서술이 본 논문의 목적을 심리치료적 임상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학치료 원리의 구명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활용 가능성을 긍정하고는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성공적인 서사 구성의 원리를 구명하고자 할 뿐, 그 문학치료적 활용에 대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점이다. 그러한 구조의 적용은 오직 삶의 주체 스스로가 지나온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추하여 재구성하기 위한 구조적 원리로서, 또한 앞으로의 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인식적 도식으로서, 현실적 삶의 차원에서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삶의 고난에 맞서기 위한 서사적 삶의 운영 원리로서만 의의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기 발견-극복’의 신화 구조가 적절하게 기능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삶의 지표와 관계없이, 적어도 자기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의 역량 있는 주체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하여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서사적 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구술생애담에 나타난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이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에, 그러한 극단적 인식을 견인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양자에 해당하는 사례에 나타난 서사 구조상의 변별점을 확인하고, 양자의 서사를 빚어내는 구조적 원리의 차이를 구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화적 영웅서사의 ‘고난-극복’ 구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극복의 주체로서 ‘나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방향의 서사가, ‘고난-극복’의 두 구조 축 중에서 ‘극복’의 축이 결락되고 고난 극복 주체로서의 ‘나’가 부재하는 경우에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방향의 서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자기 삶에 대한 긍정으로 일관되는 생애담 서사는 세부적으로 ‘고난-나의 역할-극복’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 무속신화의 심층적 구조화 원리인 ‘자기발견-극복’의 구조가 그대로 구현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 발견과 극복의 신화 구조’는 생애 주체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서사적 구조 원리로서, 미래적 삶의 경험을 긍정적인 의미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인식적 도식으로서, 필연적으로 반복될 현실적 삶의 고난을 맞이하여 그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사적 행동 원리로서 원형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물론 두 생애담 사례만을 통해 생애담 구술의 일반 원리를 도출해낸 본 연구에 대하여 얼마간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서사 구조화의 원리를 구명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생애담 서사를 아우르는 생애담 구조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론적 차원에서 극단적인 두 사례를 통하여 극명한 구조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 판단되며, 실제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보다 다양한 사례를 통한 확인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참고문헌

- 신동훈 외,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3, 박이정, 2013, 189-212쪽.
신동훈 외,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 9, 박이정, 2013, 53-74쪽.
- 김정섭, 「여성생애담으로서 시집살이담의 의의와 구연 양상」, 『겨레어문학』 제48집, 겨레어문학회, 2012, 5-35쪽.
- 김성례, 「여성주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성찰」, 『한국문화인류학』 제35-2집, 2001, 31-64쪽.
- 김예선, 「'살아온 이야기'의 담화 전략- 삶의 구조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19집, 고전연구학회, 2009, 279-300쪽.
- 김정경, 「여성 생애담의 서사 구조와 의미화 방식 연구 -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여자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89-116쪽.
- 김정경, 「자기 서사의 구술시학적 연구 : 여성생애담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177-207쪽.
- 김정경,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화 방식 연구 : 호남지역 공방살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181-214쪽.
- 김정경, 「노년기 여성 생애담의 죽음의 의미화 양상 연구 - 서사구조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3, 283-320쪽.
- 신동훈 외, 『시집살이 이야기 연구』, 박이정, 2012.
- 윤택립, 「여성어떻게 이야기 하는가 : 시집살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 여성 서사 분석」, 『구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145-180쪽.
- 조홍윤, 「콤플렉스 치유의 관점에서 본 한국 무속신화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65면.
- 조희진, 「생애담에서 드러나는 '정체성 재현'의 양상과 기제 : 옛 역촌에 거주하는 반가 출신 여성의 경험과 자기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56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11, 185-221쪽.
- 천혜숙, 「농촌여성생애담의 문학담론적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집,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283-324쪽.
- 최원오, 「여성생애담의 이야기화 과정, 그 기능성과 한계」, 『구비문학연구』 제 32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 37-72쪽.
- 한정훈, 「구술생애담, 기억의 재현과 주체의 복원」, 『감성연구』 제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3, 169-208쪽.
- 한정훈, 「인정의 서사와 주체의 재정립 : 무명의 한 여성 판소리 창자의 구술 생애담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호권 2호 제6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347-383쪽.
- S.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옮김, 푸른사상, 2003.
-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형태론』, 유영대 옮김, 새문사, 1987.
- Donald E. Polkinghorne,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강현석 외 옮김, 학지사, 2009, 1-406쪽.
- Derek L. Robertson & Christopher Lawrence, “Heros and Mentors: A Consideration of Relational-Cultural Theory and The Hero’s Journey”,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Vol.10(3), 2015, pp.264-277.
- Mircea Eliade, 『이미지와 상징』, 이재실 옮김, 까치, 1998, 1-224쪽.
- Philip Dybicz, “The Hero(ine) on a Journey: A Postmodern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Vol.48(2), 2012, pp.267-284.

* 이 논문은 2018년 2월 20일 투고되어 3월 15일 심사 완료하고 3월 15일 게재 확정함.

<Abstract>

Analysis of the Narrative of Oral Life Stories Applying the Mythical Structure of Self-Discovery/Overcoming

Cho, Hongyoun

(Lecture Professor, TR Istanbul University)

Deciding on whether one's life has been successful or not is grounded in one's inner truth, that is, the self-awareness of a judging agent of "I". Such self-awareness is noticeably revealed in both the superficial and deep layers of the narrative in oral life stories. What is interesting is that self-awareness found in oral life stories is often characterized by severe extremity. This means that we can easily find cases that are characterized by the self-awareness of extreme ends, either affirmation or negation. This study will focus on factors that lead oral life stories towards either of the extreme ends, in order to figure out the distinctive points of narrative structures found in the two cases. During the process, this author has observed that when the "hardships-overcoming" structure of mythical heroic narrative is distinctly shown, and the roles of "I", the agent of overcoming, are noticeable, the narrative of oral life stories oriented to the affirmation of one's life omits the axis of "overcoming" among the two structures of "hardships-overcoming", and when "I" as the agent of overcoming is absent, the narrative of oral life stories oriented to the negation of one's life is constructed. At this time, the narrative of life stories consistent with affirmation comes to form the

structure of "hardships-my roles-overcoming" in detail, and this corresponds to that of "self-discovery/overcoming" found in Korean's shaman myth. If so, the mythical structure of self-discovery/overcoming may function as the principle of a narrative structure allowing the agent of life to reconstruct his/her life positively, as cognitive schemata to integrate coming experiences in life as positive meanings, and as the behavioral principle of narrative to confront hardships in real life that will inevitably be repeated, and cope with them successfully.

Key words: Oral life stories, self-awareness, the structure of life stories, the mythical structure, self-discovery, hardships overcoming